



죽비와 목탁

김진성 기자

yearn@buddhapia.com



존엄사와 불교교리

“별다른 치료 방법이 없는 환자에게는 자신의 삶의 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한다.” “인간의 생명은 어떤 순간에도 존중받아야 한다.”

최근 법원이 존엄사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후 이에 대한 사회 각계의 의견이 분분하다. 서울고법민사9부(부장판사 이인복)는 2월 10일 식물인간 상태인 김모(76·여)씨와 가족들이 “김씨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해 달라”며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존엄사(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30여 년간 허용 여부 및 개념 정의 논쟁만 지속했던 안락사 문제에 다시 한번 ‘천성’ 편이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을 담당한 이인복 부장판사가 “사형 선고보다 생명과 더욱 직접적 관련이 있는 문제인 탓에 많은 고민을 했다”고 고백한 것을 보면, 아직까지 존엄사 허용에 대한 문제는 논란이 되기 충분하다.

논란이 일자 가톨릭측은 즉각 존엄사에 대해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교리적 측면에서 ‘인위적으로 생명을 끊는 행위’에는 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윤리위원회 박정우 사무국장은 “가톨릭적 생명과 관련된 가치를 연구·토론하는 교황청 산하 생명학술원과

신앙교리성 등에서 나온 공식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불교계의 경우 존엄사에 대한 어떠한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사형제에 대해서는 “강호순도 사형집행만은 안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존엄사에 대해서는 불교인 권위(위원장 진관) 등 몇몇 단체와 스님들이 각각 “인권적 측면에서 반대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을 뿐이다. 2004년~2006년에는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에서 ‘불교와 생명윤리’에 대한 토론회 및 연구 사업을 진행해 보고서와 불교계 대표 의견을 담은 ‘불교교리’를 발간했지만, 불교계 대표 의견으로 보기는 힘든 실정이다.

이는 불교계가 사회 문제를 교리적 측면에서 깊이 살펴볼 수 있는 학술적 공식 기구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불교계 각 종단이 생명과 관련된 문제 등을 제도·학문·사상적으로 조명하고, 불교교리를 현대적 의미로 재정의하는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은 시대가 불교계에 요구하고 있는 당연한 목소리다.

늦었지만 홍수보살이 <십주비바사론>에서 설한 “가르침을 설하는 사람은 세간·출세간의 온갖 사물의 생멸하는 모양을 정당하게 잘 이해하고, 부처님의 설하신 대로 실천해야 한다”는 법문을 유념해야 할 때다.

조동섭 기자

“法없는 사람이 어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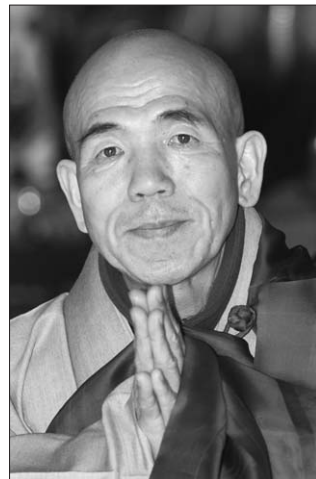
적명 스님 봉암사 조실 고사... ‘하심’ 귀감

조계종 내에서 젊은 스님이 노 스님을 폭행하는가 하면, 상좌가 은사를 고소·고발하고, 폭행도 서슴치 않는 사건은 승가기강이 무너지고 있음을 반증한다. 동국대에서 일방적으로 해임된 前 동국대영양학과 원운 스님이나 서울 불교대학원대 설립자인 덕해 스님이 이사까지 잃었던 것도 한 예다. 조계종도 2008년부터 시작한 결계(結界)와 포살(布薩)은 문란해진 승가기강을 제도적으로 바로잡자는 취지에서 시행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봉암사 수좌(首座) 적명 스님(은혜사 기가암·사진)이 수좌계의 존경받는 어른이면서도 경양의 미덕을 발휘한 사실이 전해져 훈훈한 감동을 자아내고 있다.

문경 봉암사주지 함현에서 국제선센터 건립을 위한 문경시와의 MOU 체결이 있던 2월 10일, 대웅전에서는 동양인 해법회가 봉행됐다.

법회에서 함현 스님은 적명 스님을 수좌라 소개했다. 이에 적명



스님은 “처음 봉암사에 왔을 때만 해도 가난한 절의 대명사였다. 여러 주지스님들의 노력 덕분에 행적인 불사를 마무리했다”며 “이제 남은 것은 열심히 정진하는 것뿐이니, 정진제일도량으로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행사 후 기자회견에서 함현 스님은 적명 스님을 삼고초려 끝에 수좌로나 모신 사연을 소개했다. “조실이나 방장으로 모셔도

손색없는 분이냐 적명 스님이 극구 고사했다”는 것. 당시 적명 스님은 “법이 없는 사람이 어찌 조실을 하겠느냐”며 수좌로만 남겠다고 사양했다는 후문이다.

대표적 선승인 적명 스님은 출가한지 50여 년이 넘는 구참 수좌다. 스님은 전국선원수좌회에서 고우 스님과 함께 공동대표를 지냈을 뿐, 단 한번도 주지소임을 맡은 적이 없다. 최근까지도 스님은 은혜사 기가암에서 주석하며 여름, 겨울 안거마다 결계는 물론 해제 때도 젊은 수좌들과 함께 선방에서 곳곳이 산철 결계를 이어온 ‘본분남자’다. 50여 년 공부에도 스님이 “공부가 덜 끝났다”며 법문도, 인터부도 않는 까닭에 스님을 아는 불자들이 드물 정도다.

불교는 ‘무아(無我)’를 강조했다. 승려기강에 관한 문제는 하심하지 않고 아상(我相)을 앞세운 결과로, 결국은 수행을 하지 않는 탓이라는 지적이 많다. ‘적명 스님의 경양이 더욱 화제가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조동섭 기자 cetaana@buddhapia.com

종책연구모임

불교무설연구소 개원

10월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조계종 본사주지와 종회의원 등 조계종 중진스님들이 대거 참여하는 종책연구모임이 설립돼 눈길을 끈다.

불교무설연구소(소장 정호, 오산 대각사)는 2월 13일 서울 수송동 두산위브 파빌리온 524호에서 개소식을 개최했다.

연구소 감사는 정법 스님(양양 낙산사), 호성 스님(의성 고운사), 윤영익 스님(의성 고운사), 윤영익 스님(의성 고운사), 윤영익 스님(의성 고운사), 윤영익 스님(의성 고운사)이 참여했다.

(02)723-7727

조동섭 기자

조계종 차원 상제례 정립한다

포교원, 불교상제례연구회 발족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종)은 2월 10일 ‘불교 상제례문화 연구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위위원회는 2010년 12월 말까지 <임종의례 지침서> <임종 후 3일 장례시안>을 발간할 예정이다.

회의에서 포교연구실장 동성 스님을 위원장으로, 포교연구실 사무국장 원교 스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불교상제례문화 연구위원회 자문위원으로는 보광 스님(동국대 선학)과 인묵 스님(봉선사 주지)을 임명했다.

<임종의례 지침서>와 <임종 후

3일 장례시안> 발간분야위원회에는 혜도 스님(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강동구 교수(동국대 불교대학원 생사의례학과), 김일명 겸임교수(동국대 불교대학원 사회복지학과)와 미등 스님(조계종 총무원 기획국장), 유재철·박명근 교수(동국대 불교대학원 장례비즈니스학과), 구미래 연구실장(성보문화재단 연구원), 손남숙 실장(한국생활문화연구원), 진철승 원장(불교문화정보연구원), 이기선 소장(불교조형연구소), 이재우 기획실장(연화회)을 위촉했다.

이상언 기자

구독신청·기사제보 | 02-2004-8200

조계종 원로스님들 멀빈자 구제 나서

밀운 스님, 총무원에 청원서 제출

출가자에게 ‘멀빈’은 세속의 사형에 비교되는 중징계다. 승려 신분에 관계된 일체를 회수할 뿐 아니라 멀빈조치를 회복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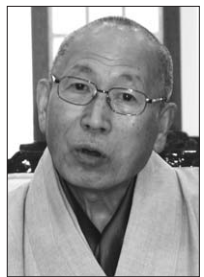
한국은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인권국가의 반열에 올랐다. 최근에는 사형제를 대신할 감형 없는 중신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반면에 자비문종이라 일컫는 조계종에는 1954년 조태분규 이후 종단 내 이해관계 등에 얽힌 540여 출가자가 멀빈 처분을 받고도 구제받지 못하고 있다. 1998년 종단사태와 관련한 경우·원학 스님 등 극소수 멀빈자만이 복권됐을 뿐이다.

이런 가운데 밀운 스님(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사진)을 비롯한 조계종 원로 대종사 24인이 “억울한 멀빈·제적자를 사면해야 한다”고 나서 눈길을 끈다.

밀운 스님은 2월 10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에게 멀빈자 복권 등을 내용으로 한 청원서를 제출한 후 기자회견을 가졌다.

스님은 “종단 분규 결과에 따라 중징계가 내려져 감형적으로 처리된 부분도 있다”며 “멀빈 당하면서 변론 못한 분들을 종단 차원의 철저한 재조사를 통해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석한 혜승 스님(조계종 원로의원)도 “해종 행위자로 멀빈당한 사람이 많은데 해종 행위는 보는 관점



에 따라 다르다”며 “정치적으로 희생된 멀빈자를 종단화합 차원에서 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헌 제128조에는 “징계를 받은 자로서 비행을 참회하고 특히 선행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집행중이라도 징계를 사면, 경감 또는 복권시킬 수 있다. 다만, 멀빈의 징계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돼 멀빈자 구제에는 종헌 개정이 필요하다.

멀빈자 사면과 관련, 중앙종회에 서는 최근에만 2003년 4월, 2004년 3월에 이어 2007년에는 법전 중정 스님 고시 후 개정이 시도됐지만 번번이 부결됐다.

밀운 스님은 “기자회견 전 총무원장 지관 스님과 중앙종회 의장 보선 스님을 만나 멀빈자 사면에 대한 인식을 같이 했다”며 “어려운 승가화합의 뜻에 따라 종회의원 스님들이 현명한 판단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밀운 스님이 제출한 청원서에 따라 총무원측은 3월 개회될 중앙종회에 총무원장 직권으로 안전상정할 예정이다.

조동섭 기자

정우 스님, 문화재보유사찰위원회 위원장 피선

불국사 월정사 선운사 등 문화재보유사찰 주지스님과 조계종 총무원교역직 스님으로 구성된 문화재보유사찰위원회 위원장에 정우 스



님(통도사)이 선출됐다. 위원회는 2월 13일 ‘2009년 제1차 문화재보유사찰위원회 회의’를 열고 △위원장 선출 △사찰문화재 보존 및 관리법 제정·공포의 건 등을 처리했다.

조동섭 기자

현대불교 영상사업 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 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 김봉환(前 KBS/동아TV/월간감독, 강연대영상감독)

문의: 02-2004-8279

봉

제 8대 총무원장 화엄 종사 이·취임법요식

행

삼보에 귀의하옵고 항상 본 종단을 애중하시는 전국 종도 여러분과 일불문도 여러분의 법체 청안하심과 하시고자 하시는 제반불사가 부처님의 자원으로 원만하게 회향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급변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불선교종 산하 본 종단에서는 나라의 안정과 인류평화 및 지난 중앙종회에서 선출된 제8대 총무원장 화엄종사의 이·취임법요식을 다음과 같이 봉행하고자 하오니 무이 동참하시어 일불존자애하의 범통수호와 유지보존 및 종단중흥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재단이사진

- 재단 이사장 **경원**
- 재단상무이사 **해광**
- 재단이사 **혜운, 도기, 일명, 화엄, 자명, 경담, 담화**
- 재단감사 **해천, 혜원**

봉행위원회

- 대법주 **제4세 종정 봉해 대종사**
- 증명 **무찰스님, 금봉스님, 청송스님, 송은스님, 원각스님, 수암스님, 명종스님, 해운스님, 도기스님**
- 봉행위원장 **법성**
- 봉행부위원장 **용운**
- 추진위원장 **경원**
- 추진부위원장 **삼주**
- 기획위원장 **용암**
- 기획부위원장 **지연, 사회부장 혜성**
- 준비위원장 **도안**
- 준비부위원장 **법해, 홍보부장 고봉**
- 집행위원장 **석성**
- 집행부위원장 **석담**
- 진행위원장 **해동**
- 진행부위원장 **진송**
- 총무부위원장 **법성**
- 총무부장 **용운**
- 중앙종회의장 **경원**
- 종회사무처장 **삼주**
- 회계위원장 **용암**
- 교무부장 **지연, 사회부장 혜성**
- 포교위원장 **도안**
- 교육부장 **법해, 홍보부장 고봉**
- 감사위원장 **석성**
- 재무부장 **석담**
- 선거관리위원장 **해동**
- 규정부장 **진송**
- 총무분과위원장 **강원동부총무원장 보해**
- 강원서부총무원장 **동청**
- 교무분과위원장 **경남총무원장 보광**
- 섭외분과위원장 **경기남부총무원장 광은**
- 경기북부총무원장 **도해**
- 동원분과위원장 **울산총무원장 지운**
- 봉사분과위원장 **대전총무원장 용주**
- 전남총무원장 **혜성**
- 제주총무원장 **경운**

(재) 대한불교 일불선교종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불선교종 제8대 총무원장 이·취임 봉행위원회